

세계 잎담배 생산 동향 *

이 이
(충북대학교 특용식물학과 교수)

1. 세계 잎담배 생산 동향

세계 잎담배 생산에 있어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 및 각종 흡연규제 강화와 같은 수요 감소 요인과 인구증가 및 각국의 경제성장과 무역의 활성화로 세계 각국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수요 증가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세계 전체적인 잎담배 생산 추이를 설명하고 특히 경지면적으로 전 세계 생산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잎담배 생산량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생산 현황과 앞으로의 생산전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잎담배의 종류

담배는 아메리카대륙 원산으로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큰 키 초본 현화식물로서 비식용작물 중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는 식물이다. 모든 품종은 *Nicotiana*속에 속하고 대부분은 *Nicotiana tabacum*이며 *N. tabacum*보다 훨씬 적은 양이긴 하나 *Nicotiana rustica*가 오리엔트종으로 일부 재배되기도 한다.

작은 잎을 가지고 향이 강한 것으로부터 크고 넓은 잎을 가진 시가용 담배에 이르

* (leeyi22@hanmail.net, 043-261-3373).

기까지 다양한 품종의 담배가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도 담배는 생물학적인 품종보다는 수확한 잎을 건조하는 방법과 잎담배의 용도에 따라 황색종, 버리종, 오리엔트종, 흑담배 등으로 나누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건조된 잎은 최종적으로 권련, 시가, 파이프 담배, 씹는담배, 코담배, 스누스(snus) 등으로 가공되어 판매된다.

황색종은 잎을 하나하나 따서 건조실 안에 매달고 열을 가해 건조한 것으로 1주일 정도 건조하며 건조된 잎은 옅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 북아메리카원산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재배되는 담배이다.

버리종은 잎을 하나하나 따지 않고 개체를 통째로 수확한 후 열을 가하지 않고 건조하는 것이 특징이고 건조된 잎은 황갈색 또는 연한갈색을 띠며 버리종 특유의 코코아와 비슷한 향이 난다. 부풀성과 연소성이 양호하여 권련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오리엔트종은 터키, 그리스 등 지중해성 기후에서 생육하는 품종으로 잎이 작고 독특한 향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중해지역의 국가와 독립국가연합에서 주로 생산된다.

흑담배는 주로 시가나 씹는담배, 코담배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잎담배로 원료를 강하게 발효시킨 것이 특징이고 카리브해 지역의 쿠바나 도미니카지역과 플로리다와 위스콘신 수마트라 필리핀 등이 주요 산지이다.

1.2. 생산주이

201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5개국 이상에서 잎담배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4백만 ha 이상이고 생산액은 200억 달러에 달한다. 1960년대까지 아메리카대륙에서 주로 생산되던 잎담배가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생산지가 이동하였다.

그 결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경작지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그 대신 중국과 말라위, 탄자니아에서는 경작면적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IBISWorld, 2013).

중국의 잎담배 생산은 집약도가 매우 낮아 2013년 현재 260만 농가가 담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을 가진 농가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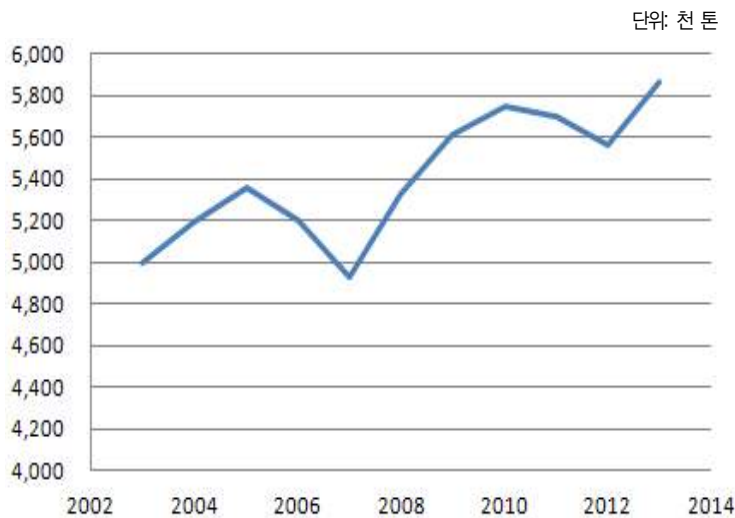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전년도 담배소비의 추이에 따라 매해 잎담배 생산을 계획한다. 중국의 잎담배 생산 산업은 중국의 담배소비와 신기술의 도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2012년부터 담배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잎담배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4~5년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대체로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2003년 500만 톤이었던 잎담배 생산량은 2011년 570만 톤, 2013년에는 58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잎담배의 생산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이유는 잎담배의 경우 가공된 것을 상당 기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황이 좋거나 생산면적이 증가하여 잎담배 재고가 쌓이면 수급조절을 위해 잎담배 생산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잎담배생산이 대부분의 경우 계약재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1 세계 연도별 전체 잎담배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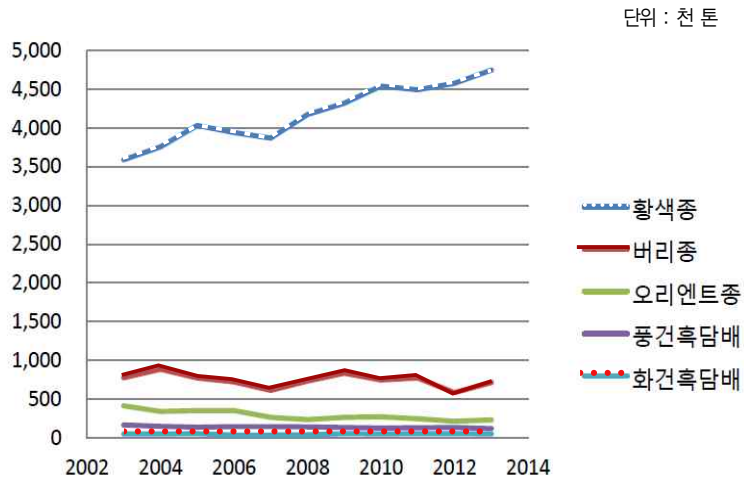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2012년은 추정, 2013년은 예상치임).

잎담배 종류별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황색종은 약간의 등락이 있으나 완만한 증가세인 반면 버리종과 오리엔트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리엔트종 생산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다. 생산량이 가장 적은 흑담배의 경우 생산량의 변동이 별로 없이 꾸준히 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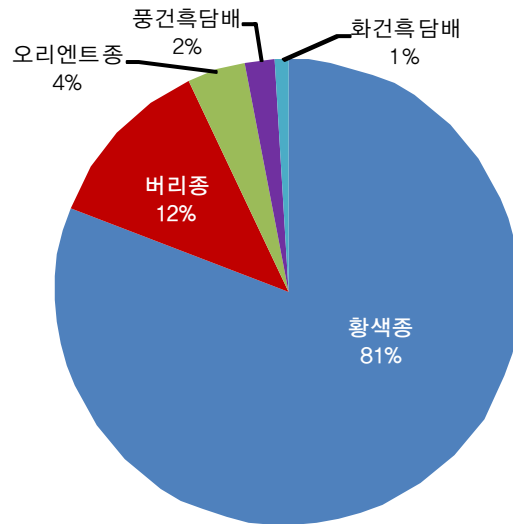
전체 잎담배 생산에서 각 종류별 생산량을 보면, 2013년 생산 예상치의 경우 황색종이 약 81%를 차지하는 가운데 버리종 12%, 오리엔트종 4%, 흑담배 3% 순이다<그림 3 참조>.

그림 2 앞담배 종류별 최근 10년간 생산량 추이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2012년은 추정, 2013년은 예상치임).

그림 3 2013년 앞담배 종류별 예상 생산량 비율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1.3. 잎담배 종류별 생산 추이

1.3.1. 황색종

황색종의 경우 2011년 생산량이 449만 톤으로 2013년에는 약 475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2011년 전체 황색종 잎담배 생산의 54%인 258 만 톤 이상을 생산하였다<표 1 참조>. 그 외 브라질, 인도, 미국이 연간 2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황색종은 국가별 생산량 변동이 심한 편이다. 황색종 잎담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짐바브웨,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등으로 중국의 경우 2003년 180만 톤에서 2013년 258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10년 동안 43% 이상 증가하였다. 인도의 경우에도 2003년 20만 톤에서 2013년 2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10년간 약 40% 생산이 증가하였다. 동기간에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방글라데시에서도 각각 10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반면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에서는 황색종 생산량이 점진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2003년에서 2011년 사이 17% 감소하였고 일본은 52% 감소하였는데,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33,000 톤에서 5,500 톤으로 83% 이상 급감하여 전 세계 주요 생산국 중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의 황색종 잎담배 생산 감소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2009년 전망자료에 의하면 2003년 황색종 경작 면적이 12,912 ha이던 것이 2011년 3,496 ha로 줄어 경작면적의 7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예측보다 더 큰 감소율을 보였다(석영선 외, 2009).

표 1 국가별 황색종 잎담배 생산량

단위: 천 톤

생산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P
수출국											
브라질	479.9	701.3	694.3	631.6	643.0	608.0	608.2	567.0	707.7	590.0	630.0
인도	201.4	238.3	235.9	242.3	259.6	279.3	325.6	335.3	277.5	273.0	276.0
미국	230.3	226.5	195.0	209.6	220.0	218.6	235.9	222.3	168.7	204.1	229.5
짐바브웨	81.8	69.9	73.4	55.5	73.0	48.8	58.4	123.3	132.3	144.0	165.0
탄자니아	30.1	41.4	49.9	47.8	49.0	51.2	55.6	88.7	122.2	69.9	125.0
아르헨티나	69.1	90.5	91.1	81.3	84.8	82.2	82.1	94.5	87.4	74.3	85.0
방글라데시	39.5	42.5	42.0	49.0	57.0	53.0	65.0	89.0	87.0	90.0	95.0
필리핀	39.3	24.0	23.1	22.0	25.0	23.0	33.0	42.2	45.0	43.7	47.0
이탈리아	52.1	49.3	51.3	48.5	50.7	49.5	53.3	50.8	43.3	30.0	35.0
인도네시아	36.4	36.2	38.0	37.0	41.0	42.0	45.2	30.0	37.2	47.5	47.5

표 1 국가별 황색종 잎담배 생산량 (계속)

단위: 천 톤

생산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P
기타수출국	255.1	293.0	297.6	225.7	200.6	201.1	203.4	225.5	237.1	238.0	241.0
소계	1,515.0	1,812.8	1,791.7	1,650.1	1,703.8	1,656.8	1,765.4	1,868.5	1,945.6	1,804.5	1,975.9
기타국가											
캄보디아	12.0	5.0	5.0	5.0	7.7	8.2	8.4	8.6	8.5	8.5	8.5
일본	33.6	35.7	32.8	24.2	25.0	25.5	21.5	23.0	16.1	14.3	12.0
파키스탄	51.3	50.3	65.8	73.8	65.8	69.4	69.0	84.0	69.0	69.0	69.0
대한민국	33.0	33.0	17.2	13.5	13.4	12.8	10.9	7.0	5.5	9.6	9.2
베트남	19.8	19.8	24.0	30.0	20.0	18.0	18.0	17.5	17.5	17.0	16.8
기타생산국	124.8	101.3	97.2	95.7	83.4	82.1	76.6	70.8	76.3	76.0	76.4
소계	274.4	245.2	242.0	242.1	215.2	216.1	204.4	210.9	192.9	194.4	191.9
중국의 합계	1,789.4	2,057.9	2,033.7	1,892.2	1,919.0	1,872.9	1,969.8	2,079.4	2,138.5	1,998.9	2,167.8
중국	1,800.0	1,700.0	2,000.0	2,050.0	1,950.0	2,300.0	2,350.0	2,461.0	2,353.9	2,579.7	2,580.0
총계	3,589.4	3,757.9	4,033.7	3,942.2	3,869.0	4,172.9	4,319.8	4,540.4	4,492.4	4,578.6	4,747.8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2012년은 추정, 2013년은 예상치임).

1.3.2. 버리종

버리종 잎담배는 2011년 말라위가 21만 톤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여 전 세계 생산량의 28%를 차지하였고 브라질, 미국, 모잠비크, 아르헨티나, 중국이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버리종 잎담배 생산은 세계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황색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버리종 잎담배를 생산하던 미국은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줄여 2011년 말라위와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 생산국으로 밀려났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황색종과 마찬가지로 주요 생산국 중에서 버리종 생산 감소세가 강한 심한 나라들이다. 2003년에서 2011년 사이 일본은 16,400톤에서 7,400톤으로 55% 감소하였고 대한민국의 경우 동기간 16,500톤에서 3,300톤으로 80% 이상 감소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3년의 버리종 경작면적 4,929 ha가 2011년 1,762 ha로 64% 감소할 것으로 2009년 연구결과 예측되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감소하여 대한민국의 잎담배 경작면적의 감소가 심각하게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영선 외, 2009).

이처럼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유독 생산량의 감소가 심한 것은 담배의 생산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잎담배를 수입해서 사용하

고 있고, 이들 두 나라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농촌인구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잎담배 경작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03년에 7.09%였던 것이 2009년 15.99%로 6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 급격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영선 외, 2009).

표 2 국가별 버리종 잎담배 생산량

단위: 천 톤

생산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2013P
수출국											
말라위	102.7	151.5	119.5	123.4	86.6	169.2	208.7	193.2	208.3	64.6	160.0
브라질	115.3	143.7	137.4	132.8	104.8	100.0	121.6	90.0	111.1	85.0	90.0
미국	123.5	127.6	93.0	97.5	102.1	95.3	90.7	81.2	71.4	90.7	90.7
모잠비크	23.4	39.4	44.1	45.9	28.2	44.5	58.4	55.3	65.9	53.0	65.0
아르헨티나	38.3	55.8	59.5	52.3	37.1	42.2	48.4	34.9	42.1	35.4	38.0
중국	45.0	45.0	29.0	25.0	25.0	36.0	35.0	35.0	37.0	37.0	37.0
타이	43.2	45.0	42.0	40.0	43.0	36.0	38.0	38.0	36.0	28.0	32.0
필리핀	24.8	9.2	7.5	7.5	8.1	9.0	12.7	17.0	19.2	13.5	17.0
이탈리아	52.4	52.1	49.1	29.1	26.4	29.7	31.4	25.9	18.3	16.0	16.0
방글라데시	1.8	2.8	3.7	4.1	5.3	7.2	14.0	25.0	16.0	16.0	20.0
과테말라	11.4	12.7	12.4	10.6	10.2	10.5	13.1	16.3	15.1	13.0	15.5
멕시코	16.8	13.1	11.4	12.8	10.0	9.9	10.0	7.1	14.1	9.7	10.4
우간다	17.0	18.5	1.6	3.5	5.5	10.0	16.3	9.2	14.0	15.0	15.0
잠비아	11.7	23.8	21.5	17.3	4.7	14.8	14.9	14.6	13.5	11.5	11.5
인도	10.5	8.7	12.8	11.8	15.3	20.9	24.5	20.5	11.5	14.0	17.0
폴란드		9.9	11.7	14.5	12.6	12.5	13.3	12.6	10.3	11.0	11.5
기타생산국	47.4	47.6	47.4	33.7	33.2	33.6	36.9	28.8	24.2	25.3	22.8
소계	685.2	806.4	703.6	661.7	558.2	681.1	787.7	704.4	728.0	538.6	669.3
기타생산국											
일본	16.4	16.3	13.5	13.2	12.4	12.6	6.6	7.0	7.4	5.1	7.3
대한민국	16.5	16.5	10.1	7.9	7.9	7.5	6.4	4.1	3.3	3.8	3.0
시리아	9.8	10.5	10.5	10.5	11.0	11.0	11.0	10.8	10.8	10.8	10.8
기타생산국	50.1	36.9	34.7	28.3	25.1	22.7	23.7	23.5	25.5	25.3	25.5
소계	92.7	80.2	68.8	59.9	56.4	53.9	47.7	45.4	46.9	45.0	46.6
총계	777.9	886.5	772.5	721.6	614.5	735.0	835.3	749.8	774.9	583.6	715.9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2012년은 추정, 2013년은 예상치임).

1.3.3. 오리엔트종

오리엔트종 생산량은 전체 잎담배 중에서 감소 속도가 가장 현저한 상태이다. 오리엔트종 생산량은 2002년 415,000톤에서 2011년 216,000톤으로 생산량이 9년 동안 48%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오리엔트종 생산지였던 터키와 그리스, 독립국가연합에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표 3 참조>.

특히 터키지역에서 2002년 154,000톤에서 2011년 43,000톤으로 9년 동안 72%나 감소하였다. 터키에서 오리엔트종의 주요 생산지는 이즈미르지역인데 이 지역에서의 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터키 전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현재 옛 소련지역인 독립국가연합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으며 터키, 중국, 마케도니아, 그리스, 불가리아가 생산량에서 뒤를 잇고 있다.

표 3 국가별 오리엔트종 잎담배 생산량

생산연도	단위: 천 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수출국											
터키	154.4	108.3	124.5	129.0	93.1	71.0	92.4	80.1	50.3	43.6	55.3
터키(이즈미르)	104.2	66.3	82.1	83.4	53.8	38.6	59.7	62.9	40.2	34.0	42.0
마케도니아	26.3	19.7	20.1	23.7	23.2	17.0	17.0	23.2	26.4	21.0	24.4
그리스	63.8	57.8	56.9	53.9	21.8	21.4	20.2	20.5	17.5	17.7	18.7
불가리아	31.1	28.5	33.5	35.6	17.4	18.2	21.9	28.8	29.1	17.0	18.3
타이	6.8	6.4	5.0	5.8	5.8	5.8	10.0	10.0	10.0	7.9	9.7
인도					1.5	2.9	4.4	6.4	9.2	3.7	2.0
이탈리아	5.2	5.3	2.3	1.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287.6	226.0	242.3	249.0	162.7	136.4	165.9	169.1	142.5	110.9	128.4
기타생산국											
독립국가연합	74.5	67.2	63.0	56.6	56.2	52.8	49.5	47.3	48.4	45.0	42.7
중국	6.0	6.0	6.0	6.0	7.0	8.0	12.0	18.0	18.0	22.5	22.5
파키스탄	9.4	10.8	11.0	9.9	13.2	11.6	15.0	15.0	14.0	15.0	15.0
시리아	10.0	10.0	10.2	10.5	10.5	11.0	11.0	11.0	10.8	10.8	10.8
레바논	10.9	9.6	8.4	8.5	8.5	7.9	7.2	7.2	5.5	5.2	5.2
알바니아	4.5	4.7	4.7	4.6	4.3	4.0	2.5	2.5	2.5	2.5	2.5
이란	3.3	2.0	1.7	2.0	2.7	3.0	2.1	2.5	2.8	1.1	1.3
기타생산국	8.4	5.3	4.8	4.9	2.3	1.5	1.9	2.4	3.2	3.1	3.3
소계	127.0	115.7	109.8	103.0	104.7	99.9	101.2	105.9	105.1	105.1	103.2
총계	414.6	341.7	352.1	352.0	267.4	236.3	267.1	274.9	247.6	216.0	231.6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2012년은 추정, 2013년은 예상치임).

터키(이즈미르)는 터키의 생산량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며, 이즈미르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을 별도로 표기한 것임.

오리엔트종의 생산이 이처럼 모든 잎담배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담배의 제도가 권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의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제 잎담배 가격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Gumus, 2008).

1.3.4. 풍건흑담배

풍건흑담배의 경우 시가와 코담배 또는 씹는담배를 만드는 원료로 이용되며 생산량은 오리엔트종보다 적으며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잎담배이다. 국가별로 보면 쿠바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 브라질, 필리핀,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다.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풍건흑담배의 최대 생산지인 쿠바에서 생산량이 43%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도 다른 잎담배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량 감소를 보였다<표 4 참조>.

표 4 국가별 풍건흑담배종 잎담배 생산량

단위: 천 톤

생산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쿠바	35.0	30.0	30.0	30.0	30.0	30.0	30.0	21.0	18.0	20.0	22.0
브라질	17.5	10.7	11.7	13.5	16.6	16.0	15.3	12.9	14.7	18.9	12.9
필리핀	13.8	13.5	10.5	8.2	3.9	10.9	11.2	11.6	13.1	17.1	11.4
미국-코담배+ 씹는담배	5.9	6.9	7.2	5.9	5.6	6.8	9.6	8.4	7.5	7.1	8.0
미국-시가	4.3	4.4	3.3	3.2	3.0	4.4	4.4	2.7	3.8	3.6	4.0
인도네시아	11.5	8.4	7.3	10.2	7.6	7.5	6.4	7.7	5.6	7.7	6.7
도미니카공화국	3.9	5.5	7.3	8.2	8.0	11.5	8.6	7.8	6.0	7.5	6.4
이탈리아	13.7	13.0	11.2	11.7	15.4	10.7	9.5	10.0	9.3	4.8	2.5
니카리agua	0.8	0.8	1.0	1.2	1.5	2.5	3.5	4.0	4.5	4.5	4.5
파라과이	2.3	6.0	4.0	2.2	6.0	3.0	2.3	4.5	8.0	4.5	6.5
남아프리카공화국	6.5	4.5	3.0	3.2	2.8	2.2	2.0	2.3	2.7	3.3	3.6
스페인	5.2	3.5	3.6	4.3	3.2	1.5	1.5	2.9	2.6	2.9	2.5
아르헨티나	6.2	4.0	6.5	6.4	7.2	6.9	2.5	2.3	1.8	2.3	2.2
콜롬비아	5.0	4.5	2.0	4.2	1.8	1.0	1.4	1.4	2.2	2.2	2.2
폴란드	1.2	1.7	2.3	2.7	3.6	3.0	3.1	3.9	2.7	2.0	1.7
프랑스	4.1	3.5	2.4	1.1	0.4	0.3	0.6	0.6	0.4	0.2	0.2
소계	136.9	120.9	113.2	116.2	116.6	118.3	111.9	103.9	103.0	108.5	97.3
기타생산국	30.5	30.4	26.3	28.5	28.2	25.1	22.9	25.0	27.2	25.6	24.8
총계	167.5	151.3	139.5	144.7	144.8	143.5	134.8	128.9	130.2	134.1	122.0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2012년은 추정치임).

1.3.5. 와건흑담배

화건흑담배의 경우 가장 진한 색을 가진 잎담배로 잎담배 건조 시 불을 사용한다. 자극적이고 연기냄새가 나며 씹는담배, 코담배, 시가, 파이프담배와 스누스(잎에 무는 담배) 등 다양한 종류의 담배를 만드는 원료로 이용되며 생산량은 전체 잎담배 종류 중 가장 적어 2011년 기준 54,000톤에 불과한 정도이다. 국가별 생산량은 미국이 전체의 35%인 18,9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말라위, 모잠비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표 5 참조>. 전 세계적인 생산량 변동은 크지 않으나 국가별로는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인도에서는 그동안 5배로 증가하였고, 말라위에서는 3배로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37%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생산량이 아주 적은 상태에서의 변동으로 큰 의미를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국가별 화건흑담배종 잎담배 생산량

단위: 천 톤

생산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E
미국	15.8	15.6	16.7	13.8	15.8	19.1	24.5	19.6	20.1	18.9	20.8
인도	1.1	1.2	1.8	1.0	1.3	2.1	2.8	4.2	7.0	5.5	6.3
인도네시아	8.0	8.0	7.0	3.2	3.7	5.1	7.5	5.5	3.0	5.0	4.0
말라위	1.6	4.5	5.5	0.4	0.7	1.1	1.9	3.3	2.6	5.0	2.5
모잠비크	3.2	4.3	5.4	2.6	2.3	1.9	4.0	4.7	4.5	4.8	3.0
탄자니아	4.5	3.2	5.8	5.2	3.5	1.0	2.4	3.5	4.5	3.7	2.5
이탈리아	4.7	5.3	4.7	4.1	3.4	3.2	2.8	3.1	3.1	2.8	3.0
케냐	1.8	2.0	1.3	1.2	1.1	1.2	2.0	2.0	3.4	2.5	2.5
우간다	5.0	4.5	2.6	0.3	0.4	0.5	1.0	2.5	3.0	2.5	2.8
캐나다	1.8	1.6	1.5	1.4	1.3	1.9	2.0	1.2	0.9	1.2	0.9
잠비아	0.2	0.8	1.2	1.1	0.7	0.8	1.0	0.5	0.5	0.7	0.7
콩고민주공화국	1.5	1.5	1.5	1.5	1.0	1.0	0.9	1.1	0.5	0.3	0.3
소계	49.2	52.3	55.0	35.9	35.2	38.9	52.8	51.3	53.1	52.9	49.3
기타생산국	1.3	1.4	1.3	1.3	1.3	1.3	1.3	1.4	1.4	1.4	1.4
총계	50.5	53.7	56.4	37.2	36.5	40.3	54.1	52.8	54.5	54.3	50.7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2012년은 추정치임).

2. 중국의 잎담배 생산

중국은 전 세계 잎담배 생산면적의 1/4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전 세계의 1/3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황색종의 경우 2013년 전 세계 생산량의 54%를 차지하여 세계 황색종 잎담배의 생산량을 좌우하고 있다. 전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전매청이 매해 잎담배의 생산을 할당에 의해 계획적으로 통제하고, 수매가격 또한 전매청에서 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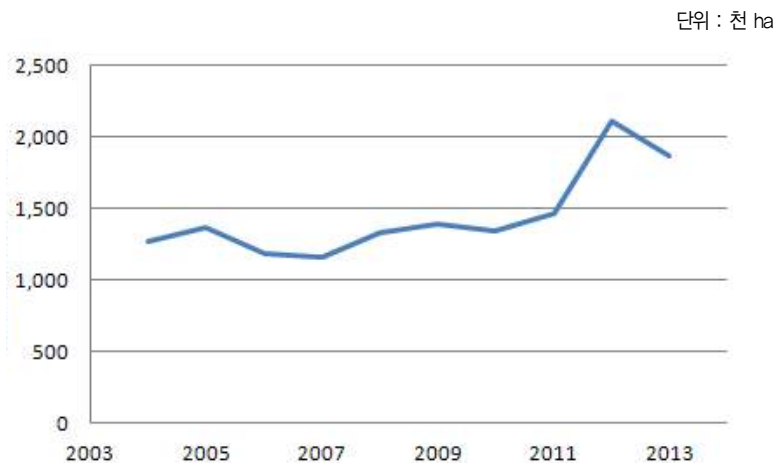
이러한 중국의 잎담배 생산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잎담배 생산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세계 잎담배 생산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 중국의 잎담배 생산 추이

중국의 잎담배 생산면적은 2004년 126만 ha에서 2012년 212만 ha로 68%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다시 약간 감소하였다<그림 4 참조>.

중국의 잎담배 생산지역은 남중국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 남중국 지역에 80%의 경작지가 분포하고 동중국 지역에 11%, 북중국 지역에 9%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BISWorld, 2013).

그림 4 중국의 연도별 잎담배 생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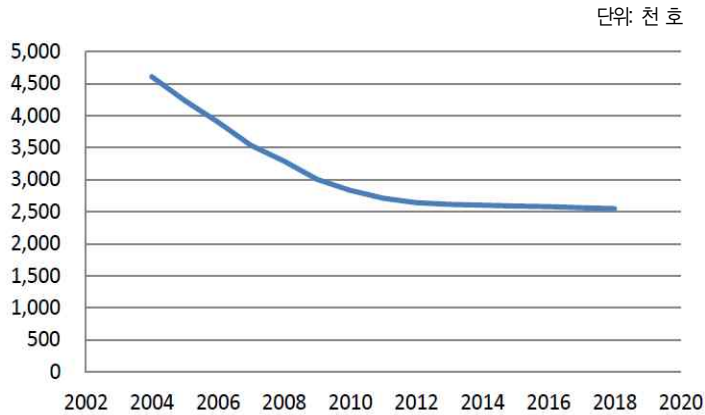
자료: IBISWorld, 2013 (2012년은 이후는 추정치임).

경작농가의 수는 2004년 461만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261만 농가로 43%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농가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는 255만 농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 참조>.

잎담배 생산액은 2008년 53억 달러에서 2013년 67억 달러로, 5년 동안 평균 4.9%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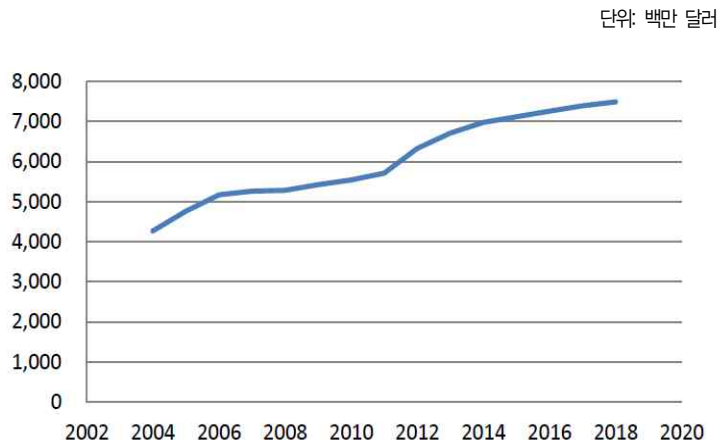
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6 참조>.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다른 농작물의 가격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에 비해 잎담배 수매가의 상승폭이 낮아 농민들이 재배를 꺼리는 실정이다.

그림 5 중국의 잎담배 생산 농가 수 전망



자료: IBISWorld, 2013 (2012년은 이후는 추정치임).

그림 6 중국의 잎담배 생산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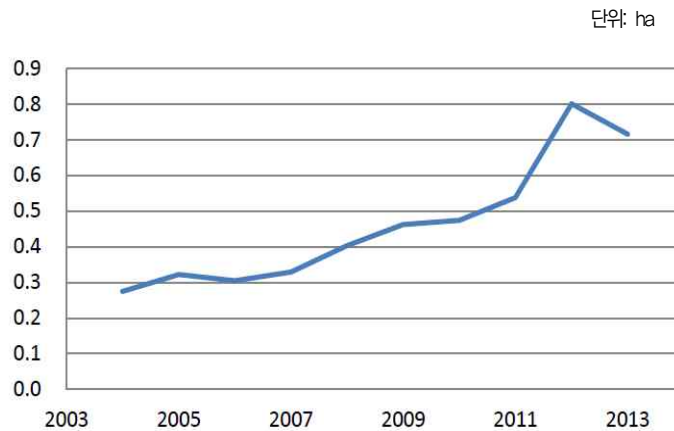
자료: IBISWorld, 2013 (2012년은 이후는 추정치임).

2.2. 중국 잎담배 생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

중국에서 잎담배 생산 농가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농가당 경작면적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농가당 경작 면적을 계산해 보면 2004년 농가당 0.275ha를 경작한 것에 비해 2012년에는 0.801ha로 8년 동안 농가당 경작 면적이 거의 3배로 증가하여 중국에서 잎담배 경작 농가당 경작규모가 커짐을 알 수 있다<그림 7 참조>.

중국의 잎담배 생산 농가당 경작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기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7 중국의 잎담배 생산 농가당 경작 면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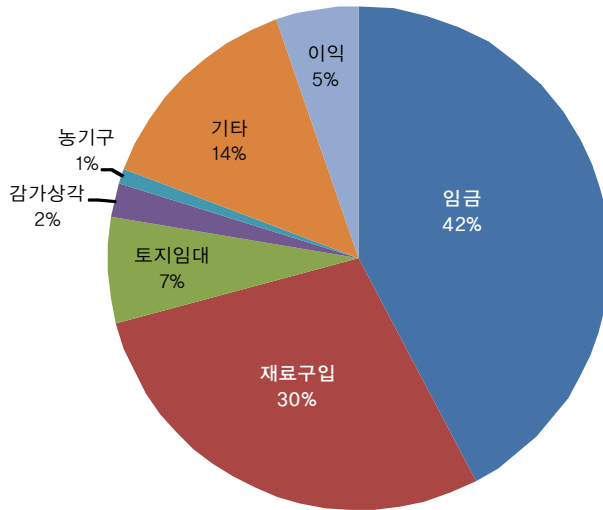
자료: IBISWorld, 2013 (2012년은 이후는 추정치임).

하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기업이 잎담배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농가는 없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는 아직 잎담배 전매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정부에 의해 담배의 제조와 소비에 따른 잎담배의 생산과 판매가 계획 경제에 의해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잎담배의 생산과 가격에 대한 자율성은 없으나 농가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위험요인을 피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다(IBISWorld, 2013).

중국 잎담배 산업의 비용구조를 보면 임금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재료의 구입이 30%로 뒤를 잇고 있으며 토지 임대와 기타 비용이 차지하고 있

다. 이익은 전체의 5.3%에 불과해서 결국 잎담배 생산농가는 자가 노동을 통한 임금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8 참조>.

그림 8 2013년 중국 잎담배 산업의 비용 구조



자료: IBISWorld, 2013.

2.3. 중국의 잎담배 수출과 수입

중국은 세계 제1의 잎담배 생산국이어서 상당한 양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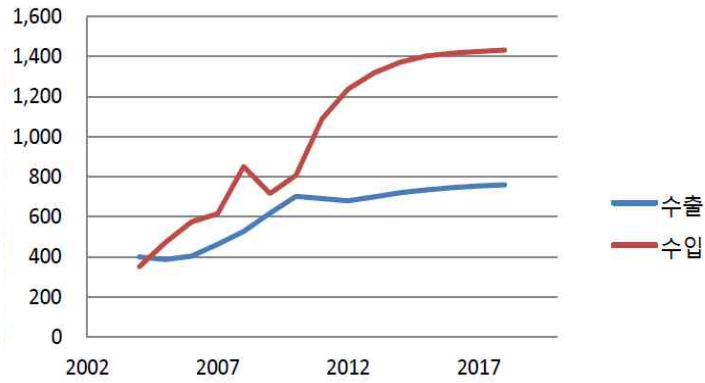
2004년까지는 중국이 잎담배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순수출국이었으나 수출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수입은 급속히 늘어서 2012년부터는 수입이 수출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많은 양의 잎담배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담배나 고급 담배의 제조에 필요한 고품질의 잎담배와 특수잎담배를 중국내 생산으로는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면 중국은 2015년 약 7억 달러의 잎담배를 수출하고, 14억 달러의 잎담배를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잎담배의 종류별 분포를 보면 2011년 전체 생산량의 98%가

황색종이고 버리종과 오리엔트종이 각각 1%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황색종이 생산 잎담배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각종 담배의 제조에 필요한 버리종과 오리엔트종, 흑담배종 잎담배의 수입이 꼭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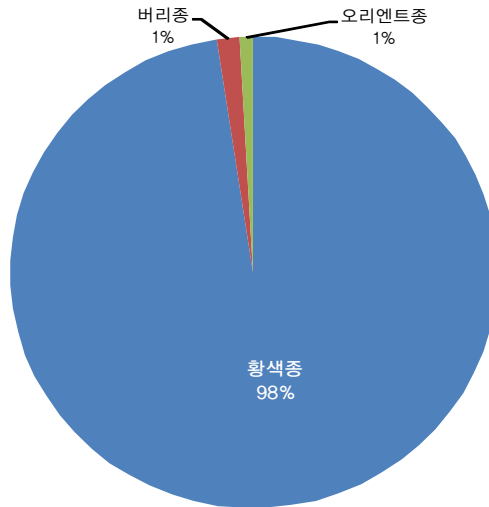
그림 9 중국의 연도별 잎담배 수출입 현황과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BISWorld, 2013 (2012년은 이후는 추정치임).

그림 10 2011년 중국의 잎담배 종류별 생산 현황



자료: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2.4. 중국의 잎담배 생산 조절과 가격 결정 구조

중국에서 잎담배 생산은 전적으로 전매청에 의해 조절된다. 전매청에 의해 잎담배 생산자와 생산지 선정부터 잎담배의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나 비료에 이르기까지 결정되며 필요물품들은 고정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생산된 잎담배 또한 국영기업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구매되며 어떠한 개인이나 회사도 잎담배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경작자는 정부에서 등급에 따라 정한 가격에 전량 국영기업에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전매제도로 인해 경작자는 판로에 대한 걱정이 없이 경작하고 싼 가격에 재료를 공급받긴 하지만 생산된 잎담배를 싼 가격에 판매해야 하므로 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없어 농민들이 잎담배 경작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991년 제정된 중국전매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각 지역 담배회사는 지역에 적합한 종자를 시험을 거쳐 농가에 공급하고, 둘째, 잎담배 구매계획은 경제계획 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셋째, 담배회사는 전매당국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른 가격에 경작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넷째, 담배회사는 등급에 따라 전량 구매하고 정해진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없고, 다섯째, 생산된 잎담배와 재가공된 잎담배의 분배계획은 당국의 지도를 받으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말 중국담배규제계획이 시행되면서 잎담배 재배지역이 더욱 강하게 규제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중국의 잎담배 산업은 어느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전 세계 잎담배 생산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총 생산량에서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잎담배의 종류별로는 황색종의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잎담배들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오리엔트종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 세계 황색종 잎담배 생산의 반 이상을 계속해서 차지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있었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색종과 버리종을 생산하는데 지난 10년간 각각 83%와 80%가 감소하여 주요 잎담배 생산국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컸다. 이러한 감소는 담배제조회사의 잎담배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잎담배 재배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잎담배 산업 전망이 밝지 않으며 중국 당국이 2012년부터 담배규제정책에 적극 나서면서 세계 잎담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잎담배의 생산이 과종으로부터 정식,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잎담배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경작면적 감소를 막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광원 외. 2009. 「담배과학」. 한국연초학회
- 석영선 외. 2009. 「중장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발전 방향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FAO. FAOSTAT www.fao.org
- Gumus, S.G. 2008. Economic analysis of oriental tobacco in Turkey. *Bulgari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14: 470-475.
- IBISWorld, 2013. *Tobacco growing in China: Market Research Report*. IBISWorld Industry Report 0118.
-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02. *2002 Supply and Demand*.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04. *2004 Supply and Demand*.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06. *2006 Supply and Demand*.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08. *2008 Supply and Demand*.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 2012. *2012 Supply and Demand*. Universal Leaf Tobacco Company.